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3.00원 상승한 1,191.80원에 마감

3일 환율은 전일대비 3.00원 상승한 1,191.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70원 상승한 1,189.50원에 개장했다. 소폭 갭업 출발한 환율은 개장 초 위안화와 코스피 지수 강세에 연동해 1,187원대로 저점을 낮추기도 하였으나 이내 반등하였다.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달러-원 환율은 상승 폭을 확대하며 1,190원대로 레벨을 높였다. 1,190원대 초반에서 네고 물량 유입에 상단은 제한되며 전일대비 3.00원 상승한 1,191.8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5.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33.23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89.50	1193.10	1187.50	1191.80	1190.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32.69	1036.49	1029.83	1033.11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2.35	1354.51	1344.11	1346.14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53	1.53	2.61	3.49
결제환율(수입)	1.1	2.63	4.21	5.93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 국채금리 상승에 달러화 강세...1,19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8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91.80원) 대비 3.90원 상승한 1,196.55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심리 회복에도 글로벌 달러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예정된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표가 양적, 질적 회복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와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2bp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된 점 및 1,200원 빅피겨를 앞둔 당국 경계감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92.33 ~ 1200.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654.3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90원 ↑ ■ 美 다우지수 : 36585.06, +246.76p(+0.6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3.0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542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